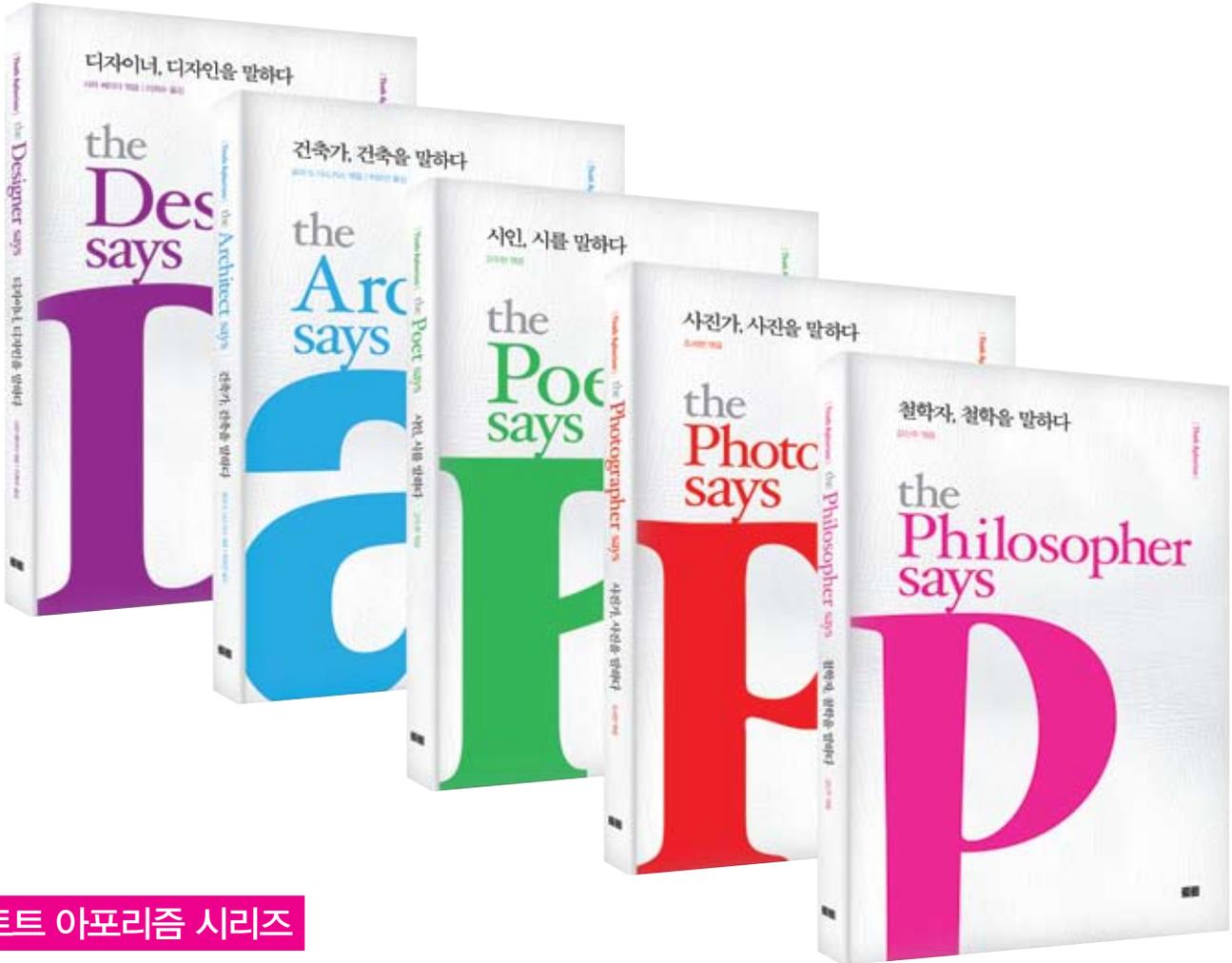


[Thoth Aphorism Series]

‘토틈 아포리즘’은 문학과 철학, 예술 등 분야별 거장들의 명구를 담은 집언집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경구처럼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촌철살인의 기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아포리즘의 영감들이 여러분의 창의성을 불꽃처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토틈 아포리즘 시리즈

철학 · 사진 · 시 · 건축 · 디자인 등 1차분 5권을 먼저 선보입니다!

철학자, 철학을 말하다 The Philosopher says

엮은이 강신주 | 펴낸곳 토틈 | 정가 13,000원 | 판형 140×223 | 쪽수 200 | 분야 인문 | 발행일 2013년 6월 12일 | ISBN 978-89-94702-27-8 03100

사진가, 사진을 말하다 The Photographer says

엮은이 조세현 | 펴낸곳 토틈 | 정가 13,000원 | 판형 140×223 | 쪽수 192 | 분야 인문 | 발행일 2013년 6월 12일 | ISBN 978-89-94702-28-5 03100

시인, 시를 말하다 The Poet says

엮은이 고두현 | 펴낸곳 토틈 | 정가 13,000원 | 판형 140×223 | 쪽수 200 | 분야 인문 | 발행일 2013년 6월 12일 | ISBN 978-89-94702-29-2 03100

건축가, 건축을 말하다 The Architect says

엮은이 로라 S, 더스키스 | 옮긴이 박유안 | 펴낸곳 토틈 | 정가 13,000원 | 판형 140×223 | 쪽수 176 | 분야 인문 | 발행일 2013년 6월 12일 | ISBN 978-89-94702-30-8 03100

디자이너, 디자인을 말하다 The Designer says

엮은이 사라 베이더 | 옮긴이 이희수 | 펴낸곳 토틈 | 정가 13,000원 | 판형 140×223 | 쪽수 184 | 분야 인문 | 발행일 2013년 6월 12일 | ISBN 978-89-94702-31-5 03100

*도서에 대한 문의는 토틈출판사로 연락주세요. 담당_편집주간 김난희

분야별 대가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촌철살인의 아포리즘

토틸 아포리즘 시리즈는

철학, 예술, 문학 등 인문 분야 전반에 걸친 대가들의 작업과
그 삶에 배어 있는 정신의 결정체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글 속에 깃들여 있는 대가들의 영감이 독자들의 예술적 감흥을 충전하고
창의적 발상의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읽은 이들이 평소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어두었던 구절들이라
되새길수록 그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토틸 아포리즘 시리즈는 음악, 미술, 영화, 역사 등
우리 문화 전반으로 관심을 넓히며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180여 명의 영감을 동시에 만난다

철학자 강신주 선생은
“한 권의 책을 꼼꼼히 읽어도 영혼을 뒤흔드는 한두 구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습니다.
토틸 아포리즘은 분야별 대가들의 선구안을 통해
이 과정을 축약한 아포리즘 셀렉션입니다.
각권의 책은 170~180여 건의 보석 같은 아포리즘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가들이 선별한 대가들의 말은 한 줄을 읽어도
한 권을 읽는 것 같은 깊이와 즐거움을 전해줍니다.

짧지만 충실한 네임 인덱스로 인문학적 소양까지 쌓을 수 있게

토틸 아포리즘 시리즈는 대가들의 아포리즘 외에
해당 명언을 남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
각권에 따라 각 아포리즘이 소개된 페이지에, 더러는 책 말미에,
작은 지면이지만 대가들의 생애와 면면을 읽을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담고 있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철학을 말하다

우리는 마찰이 없는 미끄러운 얼음판으로 잘못 들어섰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조건은 이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찰이 필요하다. 거친 땅으로 되돌아가자!

- 비트겐슈타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종관계란
사람들의 상호의존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서로의 욕구가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미리 그를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 루소

'이성'은 감각들의 증거를 날조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다.
감각들이 생성, 소멸, 변화를 보여줄 때, 그것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니체

환대는 편안함의 해체이고, 해체는 타자에 대한 환대다.

- 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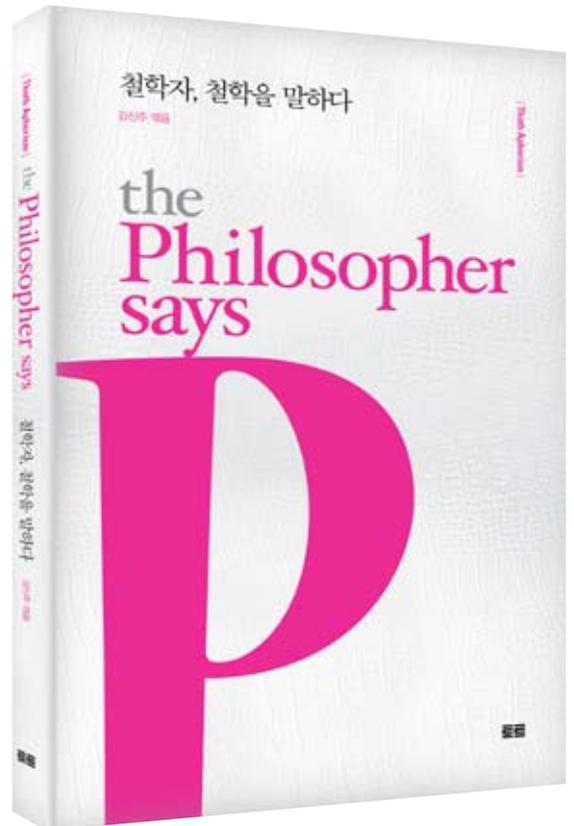
철학이 삶은 회고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구절 하나를 망각한다.
삶은 미래를 향해 살아내야 한다는 것.

- 키에르케고르

아는 바를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얇아다.

- 공자

the Philosopher says



역은이 강신주

196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강단을 벗어나 대중 강연과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문학자가 되었다. 새로운 철학적 소통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인 세상을 꿈꾸는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장자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출판기획사 문사철의 기획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곳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 「철학, 삶을 만나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상처받지 않을 권리」,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철학 VS 철학」 등이 있다.

책에도 도끼날처럼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에 핏빛 상처를 만드는 핵심 구절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꼼꼼히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결코 읽기 어려울 만큼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한두 구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책을 읽지 않는 것과 진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사진가, 사진을 말하다

사진은 충동의 무의식에 대한 정신분석학처럼,
시각의 무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 발터 벤야민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들조차 사진으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직 사진가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 리처드 애버던

한 장의 사진에는 마음을 일깨우는 힘이 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그것이 내가 사진 찍는 이유다.

- 최민식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다.

-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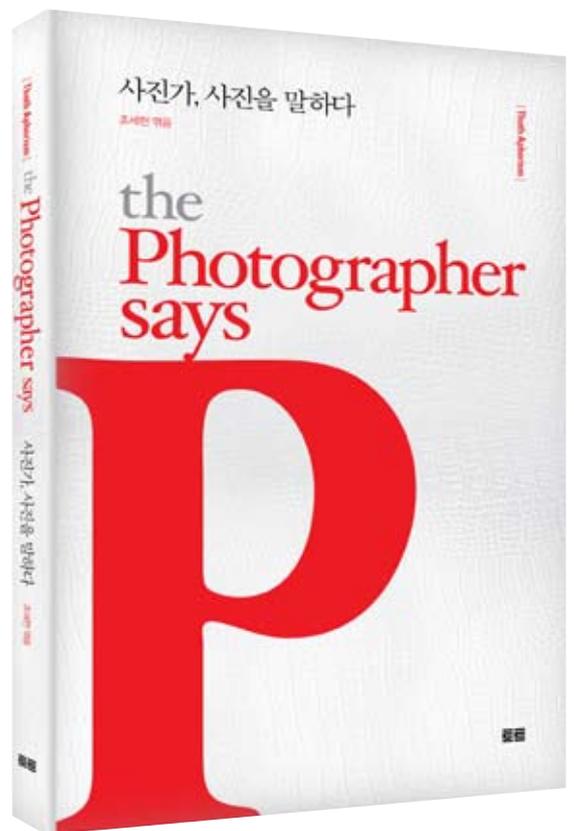
내 생애 최고의 사진은 아직 찍지 않았다.

- 마크 리부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찍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진이 갖는 놀라운 힘이다.

- 조세현

the Photographer says



역은이 조세현

사람의 내면을 끌어내는 인물사진과 탁월한 시각의 광고·패션사진으로 '한국의 리처드 애버던'이라 불리는 국내 최정상 포토그래퍼다. 사진을 '타인과의 공감'을 이루는 매개물로 받아들이는 그는 지난 30년 동안 사람을 주제로 일관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편지' 10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입양문화를 재조명하고, '희망프레임'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족, 노숙자, 기아아동, 장애인 등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등 문화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의 겸임교수와 강사 등으로 10년 이상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현재 작품활동과 함께 (사)조세현희망프레임 이사장, 장애인체육회 이사, 국가인 권위원회 자문위원, 입양아동 홍보대사 등의 역할로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 세계패션그룹 사진가상, 2009년 이해선사진문화상, 2011년 대통령표창, 2012년 사회복지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Letter From ICON』, 『조세현 패션사진』, 『Santorini』, 『The Man』, 『바람의 소리, 한복』, 『조세현의 얼굴』, 『The Family』, 『천사들의 편지, 10년』 등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선배들의 말들은 지금의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포토그래퍼의 자화상을 부끄럽게 비추주었습니다. 거장들의 인생에 비추어보니 저는 아직 청년 사진가에 불과한 나이와 경력일 뿐인 것 같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시인, 시를 말하다

시는 악마의 술이다.

- A. 아우구스티누스

시는 체험이다.

- R. M. 릴케

내 삶에서 시는 단독정부의 수반처럼
무서운 권력을 쥐고 있다.

- 천양희

시는 아름답기만 해서는 모자란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필요가 있고, 듣는 이의 영혼을 뜻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 호라티우스

시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이해는 또 다른 사랑이다.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본다.

- 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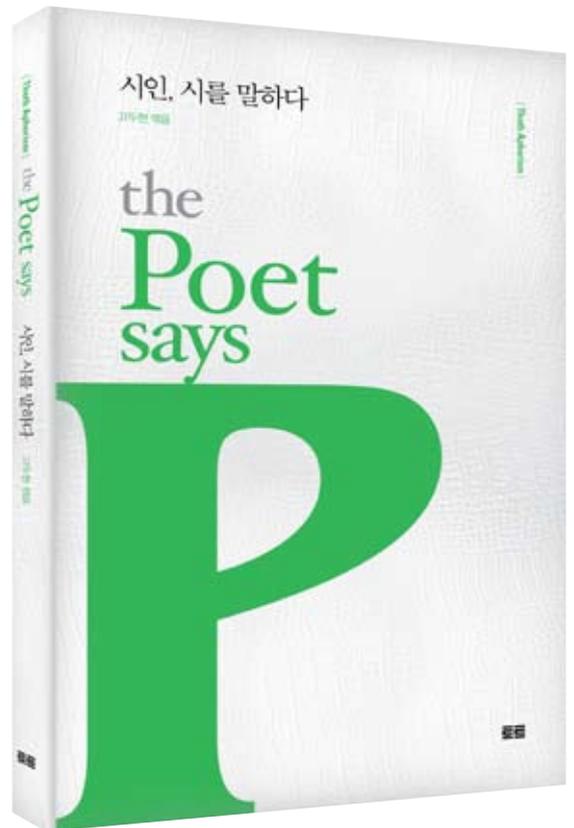
사람의 생각이 우주의 자장을 뚫고
만물의 언어를 캐내는 것.

- 이근배

시란 영혼의 음악이다.
보다 위대하고 다감한 영혼들의 음악이다.

- 볼테르

the
Poet
says



역은이 고두현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유배시집-남해 가는 길」 당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펴냈으며』, 제10회 시와시학 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1988년 <한국경제신문> 입사 후 주로 문화부에서 문학·출판 분야를 담당했다. 프랑스 파리로 1년간 언론인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문화부장을 지낸 뒤 현재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KBS와 MBC, SBS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에서 책 관련 코너를 오래 진행했다. 저서로 『시 읽는 CEO』, 『옛 시 읽는 CEO』, 『미래 10년 독서 1, 2』, 『독서가 행복한 회사』 등이 있고, 『곡선이 이긴다』를 공저했다.

등단한 지 20년이 넘는 지금도 시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시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문학청년들을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고, 뛰어난 시인들조차 시 마詩魔의 뒷에 올라매는 그것……. (중략) 그래서 시를 정의한 글을 만나면 밀줄을 긋거나 옮겨 적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 시인들의 명언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흥에 전율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건축가, 건축을 말하다

틀을 깨고 나가는 길 찾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틀이란 나를 짓누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 아라타 이소자키

건축가에게 당신 최고의 작품이 뭔지 물어보라.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음 작품요."

- 에밀리오 암바스

나쁜 책이라면 덮어버리면 된다. 영터리 음악도 안 들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당신 집 맞은편에 서 있는 추한 고층건물을 피할 도리는 없다.

- 렌조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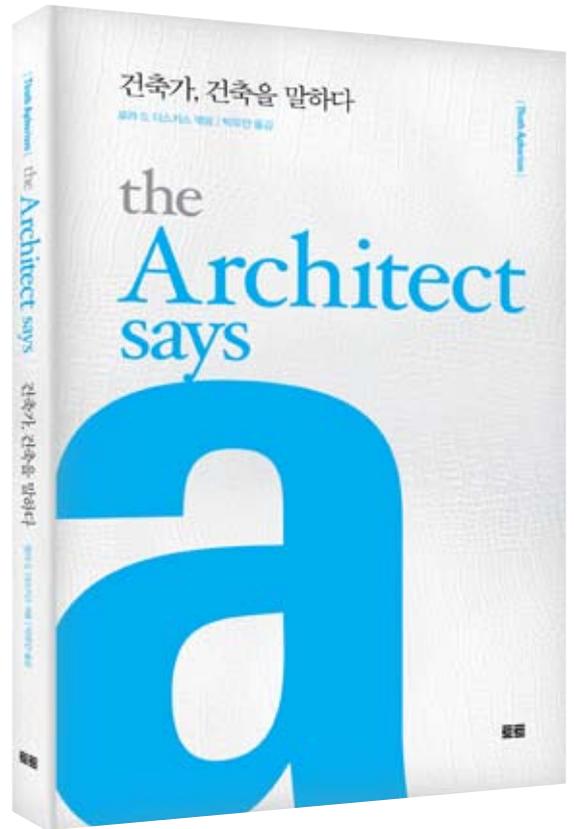
고요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축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저 실수일 따름이다.

- 루이 바라칸

끝까지 잘 생각하라.
처음부터 끝을 염두에 두라.

- 레오나르도 다빈치

the Architect says



역은이 **로라 S. 더스키스**

더스키스는 시애틀의 대형 건축회사인 NBBJ에서 일하는 사서다. 건축가들을 위한 정보를 모으는 전문가인지라, "시점을 두리번거리며 살 책을 고르고, 그걸 동료들과 나누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 행운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다. 건축가들은 이미지와 대화하지만, 더스키스는 같은 책을 두고서도 텍스트와 대화했다. 그렇게 만난 말들과 단어들이 방대하게 쌓였고, 그걸 엄선 편집하여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여기 담긴 건축가들의 방대한 지혜와 명언을 만끽했다면, 시대를 통틀어 또 세계 전역을 가로질러 건축가들이 무엇을 중요시했는지 살피는 일이 흥미로웠다면, 독자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도서관, 서점, 인터넷에서 이 건축가들이 펼치는 사상의 향연을 직접 접해보기를 더스키스는 기대한다.

옮긴이 **박유안**

'바람구두'라는 출판사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연애, 여행, 혁명, 참선 등 일 아닌 다른 온갖 것들을 읽고 쓰고 옮기는 일에 더 재미가 좋다. <참여사회> '통인' 코너에 인터뷰를 연재 중이고, '잔 모리스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글쟁이다. 잔 모리스의 『50년간의 유럽여행』, 『50년간의 세계여행』을 비롯 소설, 인문, 여행서 등 여러 권을 우리말로 옮겼고, 곧 페미니스트 작가 김순 그레엄의 페미니즘 경제학 책까지 번역할 심산이다.

내게 말을 거는 건 언어들이다. 책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날 향해 불쑥 튀어나온다. 몇 년 전부터 나는 그런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무기에 이르렀다. 건축가들의 사고가 긴긴 시간을 버텨낼 만큼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들이 여러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어떤 색다른 생각들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 머리말 중에서

디자이너, 디자인을 말하다

아무도 봐주지 않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

- 솔 바스

타이포그래피는
인쇄 언어를 갈고 닦는 석공石工이다.

- 앨런 플레처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기대게 마련이다.

- 레이 임스

뇌는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민주적인 도구다.

- 다니엘 이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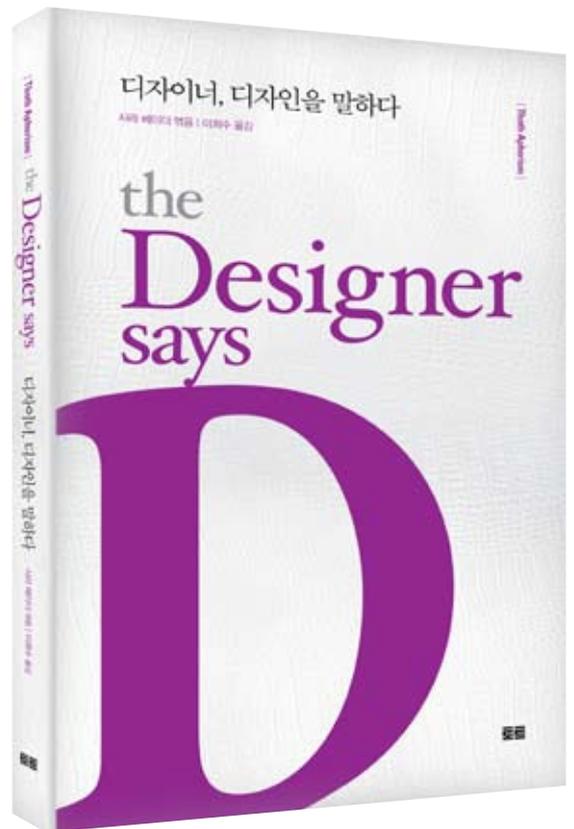
직원을 뽑을 때 가르쳐서 쓸 만한 사람보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 롬 지암피에트로

나더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 칩 키드

the
Designer
says



역은이 사라 베이더

사라 베이더는 도서 편집자, 작가, 학자이다. 저서로는 지난 300년 간 신문에 실린 1~2줄짜리 생활 광고를 통해 미국 역사를 되돌아본 『스트레인지 레드 카우 옛날 광고문에 비친 요지경 세상 Strange Red Cow: and Other Curious Classified Ads from the Past』이 있다.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에서 시각문화 관련 도서를 기획, 편집하면서 검증된 인용문들을 모아놓은 온라인 아카이브 Quotenik.com을 운영하고 있다.

옮긴이 이화수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 제7대학에서 언어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8년부터 영어와 프랑스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디자인 불변의 법칙 125가지』(공역), 『타이포그래피 불변의 법칙 100가지』, 『책 읽는 뇌』, 『대혼란』, 『브로텍의 보고서』, 『왜, 여성대통령인가』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나는 명철한 생각을 적재적소에서 읽고 들으면 관점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용에 대해 “엄히고설킨 세상사의 매듭을 끊고 본질로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낱선 언어적 도구”라고 했다. - 머리말 중에서